

FOCUS

- 페레미콘 재활용 가능 -

지난 4월 3일 환경부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되어 레미콘 제조업체의 페레미콘 재활용(성토재, 도로기층재)이 가능해 졌다.

레미콘협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업계의 페레미콘을 처리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자원의 낭비요인이 되어, 페레미콘의 재활용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줄 것을 3월 2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법령의 공포로 자원절약과 레미콘업계의 페레미콘 및 건설현장에서 반품한 페레미콘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커다란 이익이 예상된다.

그동안 페레미콘은 건축자재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으나 건축폐기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레미콘제조업체에서는 원자재구입비 및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호소해 왔었다.

협회는 이와 아울러 '운반에 있어서도 폐기물운반 전용차량을 임시차량(덤프트럭)으로 운반'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1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2호중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폐기물에 한한다), 석재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페레미콘, 무기성오니(토지·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라고 개정 공포하여 앞으로 더욱 페레미콘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와 국가경제발전,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폭넓은 재활용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건자재 재활용 우수사례 입찰시 가산점 부여 -

조달청은 건설폐자재를 포함하여 각종 물품의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우수사례를 5월 말까지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 절약적 차원의 재 활용 우수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물품 입찰시 가산 점을 부여하여 물품의 효용성을 높여나가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같이 전자재재활용우수업체로 선정될 경우 물품입찰과정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정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입찰시에 각각 1점씩의 가산평가를 해줄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건설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제조업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를 통해 각각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접수시키면 되고, 모집대상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각종 건설자재를 포함한 폐자원과 재활용품을 원료로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 제조공정등을 개선해 에너지를 크게 절감시킨 사례, 기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물품의 효용성을 높였거나 낭비분야를 크게 제거한 경우면 가능하다.

- 2000년도 정부조달물품 구매계획 -

1. 국제입찰로 구매할 정부조달물품

○연간 2억원 이상 구매물품 대상 중 매년 수요가 반복되는 물품

2. 일반내자로 구매할 정부조달물품

○연간 5천만원 이상 구매물품 대상 중 매년 수요가 반복되는 물품

- 기술표준원 불량레미콘 유통근절 상시기동점검반 운영 -

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저급골재를 사용한 레미콘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한 예방으로서 상시기동점검반을 운영, 저급골재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성수를 맞아 건설현장의 레미콘 투입량이 늘고있는 가운데 불량레미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동점검반 편성과 장비정비를 완료하고 활동하고 있다.

표준원은 5월말까지 점검활동을 펼쳐 6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원 관계자는 점검반 운영이 업계의 경각심을 주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레미콘 품질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 입찰로 구매할 정부조달 물품)

소관	주요규격	성능	조달 형태	계약 방법	계약처리기준 및 구매계획	구매시기	자격요건
서울지방 조달청	25-210-8	시설용	구매	제한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공급부서 : 자재과 구매계획 : 67,000백만원 	2000.1	조달청 등록 (공장등록증소지)
인천지방 조달청	수요부 규격	시설용	구매	제한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공급부서 : 인천지방청 구매계획 : 43,069백만원 	수시	조달청 등록 (공장등록증소지)

(일반 내자로 구매할 정부 조달 물품)

소 관	주요규격	성 능	조달형태	계약방법	계약처리기준 및 구매계획	구매시기	자격요건
서울지방 조달청	수요부규격	시설용	구매	수의 총액	•구매공급부서: 자재과 •구매계획: 500백만원	수시	조합원
	25-120-8	시설용	구매	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자재과 •구매계획: 124,600백만원	2000.2	조합원
인천지방 조달청	수요부규격		구매	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인천지방청 •구매계획: 81,921백만원	2000.2	조합원
부산지방 조달청	수요부규격		구매	수의 총액	•구매공급부서: 부산지방청 •구매계획: 3,097백만원	수시	조달청 등록
대구지방 조달청	25-210-12등 25규격	K S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대구지방청 •구매계획: 131,900백만원	2000.12	조합원
광주지방 조달청	25-180-8외	KSF4009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광주지방청 •구매계획: 147,100백만원	2000.1	조합원
강원지방 조달청	KSF 4009	토 목 건축용	구매	단체수의 총액	•구매공급부서: 강원지방청 •구매계획: 840백만원	수시	조합원
	KSF 4009	토 목 건축용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강원지방청 •구매계획: 77,189백만원	2000.2	조합원
충북지방 조달청	KSF 4009	시설용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충북지방청 •구매계획: 61,300백만원	2000.2	조합원
전북지방 조달청	25-210-8외 19종	KSF4009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전북지방청 •구매계획: 88,400백만원	2000.2	조합원
경남지방 조달청	KSF 4009	시설용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경남지방청 •구매계획: 119,000백만원	2000.2	조합원
제주지방 조달청	25-180-08 (KSF-4009)	시설용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제주지방청 •25-180-08등 17종 •구매계획: 50,100백만원	2000.2	조합원
대전출장소	25-210-12외 39종	건설자재	구매	단체수의 단가	•구매공급부서: 대전출장소 •구매계획: 122,819백만원	수시	조합원

금년도 건설경기 회복기조에 따라 레미콘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나 당분간은 레미콘제조업체는 골재가격의 상승 및 기타 원자재의 상승을 우려하며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체에서는 레미콘의 적정단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원가절감을 찾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건설사의 레미콘 제값의 수용이 어려워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 건설업체 부도율 감소 -

IMF외환위기 직후 건설사들의 부도사태는 국가건설경제에 많은 타격을 가하여 경기침체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사들의 경영수지도 보다 나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의 건

설업체의 부도율은 7.01%로 30,001개 업체중 2,103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었다. 이후 점차 부도율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1.34%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경기회복과 건설경기의 붐을 예상하고 건설업체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1988년도부터 건설업체들의 부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믹서트럭사업자 운송 중단 계획 -

지난 4월 1일 레미콘믹서트럭사업자들은 레미콘사업자들의 덤핑판매로 인한 운송비 하락, 적자로 인한 여파로 레미콘운송업자들의 운송비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레미콘을 덤핑 판매하는 레미콘제조업체의 운반을 하지않을 것으로 관련업체는 밝혔다.

그동안 IMF로 건설경기는 침체되었고, 그에따른 수주물량의 감소로 공급과잉상태에서 레미콘의 가격은 큰폭으로 떨어졌었다. 건설성수기를 맞아 건설산업이 성장의 기미를 보

(건설업체 및 부도율 동향)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 체	부도	부도율(%)	업 체	부도	부도율(%)	업 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이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레미콘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 레미콘제조업체들의 운송업자와 건설사간의 이러한 요구에 더욱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트럭운송 가동율이 60%선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2000년 3월 현재 30%에 불과한 가동율로 유류가 인상등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레미콘제조업체 역시 건설경기의 난항속에 유류가 상승, 원자재 상승등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은 고사하고 제조원가가 보전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같이 레미콘사는 건설사의 인상요구 수용과 믹서트럭 운송업자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주목된다.

- 건설경기 IMF이전으로 회복 -

기나긴 IMF파고를 지나오며, 아직도 긴 터널은 끝이 없다. 국가경기가 IMF이전의 활기를 되찾고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성수기를 맞아 예전의 경기회복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건설자재부분에 있어 콘크리트파일은 지난

해 재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재고가 바닥이 드러나면서 공급부족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건설현장에 제일먼저 콘크리트 파일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타 건설자재 철근, 레미콘등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IMF이후의 건설사는 물론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도 공급과잉사태로 재고가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콘크리트 파일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부족사태를 빚어 앞으로 콘크리트파일의 공급로는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자재도 동반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재업체들은 서서히 공장가동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건재업계는 연말까지 기초자재의 출하증가가 이어지면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기타 내·외장 마감재의 출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멘트 생산 증가일로 -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도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시멘트생산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어 1월에는 지난 99년 동월대비 1.9%증가한 2,283천M/T를 기록하였다.

〈시멘트 생산 · 내수 · 수출 현황〉

(단위 : 천M/T, %)

	1999년 1월			2000년 1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생 산	2,241	△45.7	△8.8	2,283	△42.7	1.9
출 하	1,978	△50.8	7.8	2,236	△42.7	13.0
내 수	1,696	△55.4	△6.4	1,909	△47.3	12.6
수 출	282	33.6	1,075.0	327	15.5	16.0

업체별 생산실적을 보면 쌍용양회가 602천 M/T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양시멘트 450천M/T, 성신양회 269천M/T, 현대시멘트, RH시멘트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내수는 비수요기로 인해 전월에

비해서는 47.3%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동월대비로는 12.6% 증가한 1,909천M/T를 기록하였고 앞으로 건설성수기를 맞아 시멘트의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